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읽기 시즌1 - 3강 강의록  
스피노자의 철학, 무엇을-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0. 스피노자의 본질 사유의 전개방식

(1) 스피노자(Benedict de Spinoza, 1632~1677)의 철학적 문제의식과 구도 :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정념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는가. 최고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철학하는 과정이다. 자존감을 위한 분투 : 자기 보존을 위해 인간이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대상은 세 가지이다. 제1원인을 탐구하는 지(知), 정념을 제어하는 힘인 덕(德), 안전하고 건강한 몸인 체(體)가 바로 그것이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유익한 것은 선이고 해로운 것은 악이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그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 지배받는다. 부·명예·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것에 대한 사랑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고선·최고삶을 목표로 정신과 자연의 하나됨을 인식하고 신에 대한 사랑과 인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최고선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은 참된 앎과 역능을 증대시키는 활동이다.

- ① 자연에 대한 인식
- ②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형성
- ③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특히 도덕 교육
- ④ 총체적 의학 개발
- ⑤ 기술 개발 : 용이함, 시간절약, 안락함
- ⑥ 지성 개선책

만물은 신 안에 있고, 신은 만물에 내재해 있다. 기독교의 신관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버린 신으로서 그러한 신은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신이 부족해서 더 창조할 것이 있다면 모순이다. 스피노자의 신론은 내재적 결정론의 체계를 보여준다. 시간성 속에서 신을 파악하면 창조 이전과 이후의 신으로 나뉘어진다. 이 경우 두 개의 신의 본질을 해명해야 하고 두 개의 신을 가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 하지만 신은 만물의 근원이자 목적으로서 신의 의지대로 사물의 완전성을 달리 만들 수 있다. 신이 만든 것은 그것 자체로 완전한 것으로서 신의 뜻대로 언제든지 달리 결정될 수 있다. 안 그러면 신이 두 개든가 모순되든가 해야 한다. 결정을 통해 뭔가를 상실한 것(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능력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철학은 능력이 어떻게 흐르느냐를 보여주는 긍정의 철학이다.

(2) 형이상학적 세계의 근거 탐구

17세기 형이상학에서 세계의 근원/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전제없는 탐구 :  
[하나의 근원(일자) ⇒ 만물의 다양성(다자)] : 근원과 현상적 사물의 관계?

**-형이상학적 과제 :**

① 어떻게 일자에서 다자가 나오는가?

② 어떻게 같으면서(근원) 다른가(만물)?

☞ 스피노자의 해결책 : 만물은 신의 속성의 표현이다.

㉟ 신(일자, 근원) = 하나의 절대적 무한자. 양태들(개물들) 각각 하나가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속성들로 구성된 실체이다. 즉, 양태는 신의 속성의 표현이다.

㉠ 속성 : 표현=형식. 신의 질적인 표현. 신(의 본질)이 펼쳐지는/표현하는 형식(형상적 구별-실체의 모습/무엇임)을 보여줌. 신이 나타나는 방식. 속성은 본질을 실체에 귀속시켜주는/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신의 본질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식이 하나의 속성이다. 서로 인과 관계 불가능하고 서로 병렬 관계.

\*양태/변양 : 표현의 표현. 양적인 표현. 연장이 모습을 갖는 하나의 방식이 표현된 것이다.

신

↓

신의 본질

↓ 표현

속성 ⇒(표현) 양태들 : 무한한 것.

☞ 표현 = 만물의 질적 다양성(속성들)/수적 다양성(양태들) 획득

신 = 최근(最近)의 원인(최근인). 모든 것을 통해 어떤 개물(個物)에 작용해 원인이 된다. 나머지 전체의 움직임으로 유한 양태 하나를 움직인다.

① 무한한 것이 있다. 실체는 무한하다. → 분리 가능하면 독립해서 한정되고 서로 제한되어 유한하게 된다.

② 속성은 자기 자신을 통해 생각된다. 속성은 무한하다. → 무한한 속성들이 공존 가능하다.

실체

사유 속성(생각함) : 무한한 지성 → 신 관념 : 직접적 무한성

연장 속성(펼쳐짐) : 운동과 정지 → 우주 → 무한계열 → 유한 양태들 : 간접적 무한성

일자로서의 신 → 속성(사유, 연장 등 분화방식) 대 다자(양태-속성의 표현)

**-심신동일론/심신병행론 :**

정신1→ 정신2 → 정신3 → 정신4→ ..... → 정신n

신체1→ 신체2 → 신체3 → 신체4→ ..... → 신체n

인간 :

생각의 순서 : ○-○-○-○-○-○-○-○-○-○... ↵

신체의 순서 : ○-○-○-○-○-○-○-○-○-○... 이미지

**심신병행론의 핵심**

① 실체의 동일성

- ② 속성의 다양성 : 연장-사물의 인과관계  
원인분석법          사유-관념의 인과관계
- ③ 두 인과 관계 순서의 동일성

### (3) 스피노자의 진리론/인식론 :

참된 관념의 척도=적합한 관념(타당성) = [신 안에 있는 관념=인간의 관념(신에게도 있을 수 있는 관념의 조건을 갖추는 것)=진리] : 대상과 일치된 관념(생각과 생각된 대상의 일치) /참된 관념의 내적 특성을 가진 관념(일치론에서 정합론으로의 전환) ;진리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의 척도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

현실적 경험 사건

결과 → 원인 찾기 : 그 관념의 실재

인식의 목표

#### ☞ 진리의 기준 :

- ① 일종지/상상지 : 제1종의 인식. 단편적 이미지들의 인식. 신체의 변용에 대한 관념/막연한 감각경험에 의한 인식 + 기호(소문/편견)에 의한 인식 → 오류의 유일한 원인/부적합한 관념
- ② 이종지/이성지 : 제2종의 인식=원인 인식. 2종지의 실천 = 정념에 굴복했을 때의 병리적 상태의 치료. 사물의 성질에 대한 공통관념과 적합한 관념. 공통 관념 → 신이 속성 ; 인과관계의 계열 속에서 나타나는 직관지. 연관된 이미지들에서 공통적인 것을 인식하는 단계.
- ③ 삼종지/직관지 : 신의 속성(형상적 본질)의 적합한 관념 → 사물의 본질(힘)의 타당한 인식. 제3종의 인식=본질 인식. 신적인 본성에서 개별 사물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간다.

☞ ①2종지에서 3종지로 가는 것은 관점의 전환 : 원인(개별합/현재의 관점) → 본질(통일성과 영원성의 관점) ②신체능력이 클수록 정신능력, 지각능력도 커진다/비례한다. 유물론적 요소.

### (4) 신 즉 자연

-신의 능력 : 만물의 원인 + 자기 원인

① 능산적 자연 : 힘, 역능의 관점에서 자연을 보는 것.

② 소산적 자연 : 결과물, 양태의 관점에서 자연을 보는 것.

\*신의 본질=역능 : 관념=사유능력(현실적 존재/자기를 반성적 존재)

연장=현실적 능력

### 1. 스피노자, 그리고 게루의 일반적 방법 55쪽

#### (1) 스피노자의 『윤리학』1부 앞부분의 철학적 방법 :

신의 존재 증명(앞부분) + 신의 자기 원인에 의한 전개로서의 세계

신 개념 정의6, 정리11 : 정리1~정리8은 실체-속성 : 분석의 방법이 먼저 온다.

예) 완전함에 대한 관념  $\leftrightarrow$  완전한 사물  $\leftrightarrow$  인간 외부에 있는 존재(신)

#### <학문/철학의 방법>

	분석적 방법	종합적 방법
원리	결과 $\rightarrow$ 원인 : 결과로부터 출발해 원인(원리)을 향해 전진적으로 나아가는 방법/경험적인 대 상으로부터 선험적인 주관에로 나아가는 방법.	원인 $\rightarrow$ 결과 : 원인으로부터 시작해 결과를 향해 나 아가는 방법/참된 것으로 인정된 명 제로부터 거기서 필연적으로 유래하 는 결과들에로 나아가는 방법.
진행방향	구심적이고 역진적인 방향과 성향	원심적이고 전진적인 방향과 성향
이유의 계열	인식의 이유/인식론적인 것 : 결과 $\rightarrow$ 원인. 분석은 원인, 요소 찾기 방법이다.	존재(생성)의 이유/존재론적인 것 : 제1원인 $\rightarrow$ $\diamond \rightarrow$ (분석) $\rightarrow$ $\diamond \rightarrow$ 결과
사례	①의심스러운 대상으로부터 의심하는 코 기토로 나아가는 데카르트의 방법/ ㉠인 식된 대상으로부터 인식의 주관적이고 선험적인 조건에로 나아가는 칸트의 방 법.	원인에서 결과로 나아가는 아리스토 텔레스의 방법. : 4원인(형상인, 질료 인, 운동인/작용인, 목적인)

#### <실체와 속성의 관계>

정리1 : 본성상 실체는 자기 변용들(affections, 양태들)보다 앞서 존재한다.

☞ 자기 원인 causa sui : 본질이 존재를 포함한다. 본질상 존재한다.  $\rightarrow$  신 : 스스로 존재  
한다.  $\leftrightarrow$  무한  $\rightarrow$  존재

정리2 : 서로 다른 속성들을 지니는 두 실체는 그들 간에 그 어떤 공통점도 지니지 않는다.

☞ 유한성/무한성. 사유-실체

정리3 : 사물들이 그들 간에 그 어떤 공통점도 지니지 않는다면, 그들 중 하나는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실체 = 자기 안에 있고 자신을 통해 파악되는 존재

정리4 : 분명히 구분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들은 실체들의 속성들이 보여주는 다양성에  
의해서 또는 실체들의 변용들이 보여주는 다양성에 의해서 서로 구분된다.

☞ 정의의 속성 :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지성이 그렇게 파악하는 것.

정리5 : 자연 속에는 동일한 본성이나 속성을 지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실체들이 있을 수 없  
다.

☞ \*동일한 본성이나 속성 = 동일한 실체. 양태 = 다른 것 안에 있고 다른 것 통해 평가된  
존재

정리6 : 실체는 자신과 다른 실체에 의해서 생산될 수 없다.

☞ 신=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이다.

속성 = 각각의 신을 무한하게 표현한다.

정리7 : 존재한다는 것은 실체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다.

☞ \*실체의 본성 =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

정리8 : 모든 실체는 필연적으로 무한하다.

☞ 무한한 존재 = 존재 + 무한. 무한 = 부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리1~정리8 : 실체와 속성은 하나다.

실체-속성(실체의 본질들): 사유-실체, 연장-실체, c-실체, d-실체, e-실체, f-실체 등

→ 어떤 사물의 실재성이 크면 클수록 존재가 더 많다. 실재성이 더 많을수록 더 큰 속성을 가진다. ; 하나의 실재(무한히 큰 실재) 속에 다양하고 무한한 속성을 지닐 수 있다. 즉, 하나의 실재 속에 내적 복수성(=주름; 신체의 모습=이질성들이 겹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 부채의 접힘과 펼쳐짐=주름과 표현.

-스피노자의 전진적인 종합의 방법 : [(출발점이 되는 원인 자신의 결과/주어진 것을 다듬어서) → 원인 → 결과]

## (2) 자연의 질서를 탐구하는 방법

### [자연전체의 공통적인 질서]

-과학적 인식 : imagination상상의 질서 [→이성의 질서(신의 본질로부터 사물의 속성 도출)

→ → → → → → → → 공통 관념 → (표현/설명) 본성 → 인과관계 → 신의 속성

발견의 논리

공통적인 것 참된 원인

-형이상학적 인식 :

→ → → → → → → → 직관의 질서/순서 : 신의 속성 → 신의 본질 → 개별 사물의 본질

설명의 논리

공통적인 것

### [철학적 방법의 차이]

#### -데카르트의 분석의 방법

[“내가 갖고 있는 나 자신보다 더 완전한 존재의 관념은 틀림없이 실제로 더 완전한 존재에 의해 필연적으로 내 안에 심어졌을 것이다.” → “내가 실존한다는 것과 최고로 완전한 존재”]

(다시 말해 신)의 관념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신의 실존은 아주 명백하게 증명된다.” :  
“우리가 어떤 사물의 참되고 불변적인 본성 혹은 본질, 형상에 속한다고 명석판명하게 사고하  
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해 참되게 얘기되거나 긍정될 수 있다.”]

① 결과 → 원인 : 결과가 원인에 의존함을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데카르트의 신(神) 관념의 정의 = ‘무한한 완전함’

결과에 대한 명석판명한 관념 : ‘무한하고 완전한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념

② 명석판명한 원인 관념 도달 : 결과에서 원인 도출함. 혼란스러운 원인 관념 → 이론적 충  
분성(충족 이유율) 부족 ; 왜 신은 ‘무한한 완전함’이라는 외면적 특징(신의 본질/근본 원인  
아닌 고유성)을 띠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 ؛ 스피노자의 반박-명석판명한 관념의 문제점

㉠ 원인이 무언가 있다는 지시를 하지만 적합한 인식(본질인식-원인이 무엇인지)을 제공해 주  
지 않는다. “‘무한하게 완전한 존재’가 있다면 그런 존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조건적 명제가 타당하려면 무한하게 완전한 존재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가정이 맞  
으려면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모든 존재방식을 다 합친 존재)를 제시하면 된다. 제1원인/  
신의 본성이 ‘절대적 무한성’이라면 무한한 것들이 무한히 단일한 것으로 모아지게 되어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정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데카르트의 스피노자 논박 : 우리 인간에게는 원인에 대한 인식수단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원인에 대한 참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원인에 대한 해명/설명은 가능하다. 개  
별을 인식하는 데 유 개념의 일반화하여 도달하는 것은 인식의 무능력을 보여줄 뿐이다.

☞ 데카르트의 유비적 답변의 함축 : 데카르트의 신-자기자신에 의한 원인. 본질이 존재를 낳  
는다. 본질이 존재에 대해서 형상적으로 원인이 된다. 본질이 존재의 형상원인.

비고)스피노자의 신 = 이 세계의 존재방식이 신의 본질을 구성한다. 신은 존재의 작용원인이  
다.

- ① 다의성 : 존재방식의 차이-제1원인인 신의 존재방식은 만물의 존재방식과 차이가 난다.
- ② 탁월성 : 신은 탁월해서 우리가 모른다. 신은 타자의존 안함 + 만물은 타자에 의존함
- ③ 유비 : 유비를 통해서 얻는 것은 신의 특징의 일부만 알지 신의 본질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중세 토미니즘의 산물이다.

### <스피노자의 종합의 방법>

① 원인 → 결과 : 선형적 증명. 스피노자의 신의 정의 = 절대적인 무한함.

② 우리에게서 무한한 것이란 관념이 있다(결과)

나의 유한성 ; 실수, 인식 불완전성

타자로서의 절대적 무한성의 신(원인) → 그 신이 유한한 나를 낳았다(결과).

☞ 개별적 인과연쇄는 무한소급에 빠져 주체의 결단이 불가피하지만 스피노자는 개별 인과연  
쇄를 추적하지 않고도 근원적 원인에 대한 인식으로 바로 간다. 이것이 바로 표현적 총체성으  
로서의 원인이다.

신 = [자기 원인 + 만물의 원인] → 신 = 세계/자연 : 원인의 일의성 + 내재성

신-속성(신의 존재방식/형식; 신의 본질 구성)-양태(본질의 속성 포함)

존재의 일의성과 동등성 : 존재방식의 동등성-존재의 형식이 동등하다.

본질의 차이 : 신-탁월성/만물-열등성. → 신과 만물의 동등성

다의성 → 속성의 일의성, 탁월성 → 동등성, 유비 → 표현

### (3) 마르시알 게루의 일반적 방법/구조적 방법 : 게루의 문제의식과 구조적 방법

“구조는 언제나 명백하고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종종 물질이나 관념을 다루는 역사가에 의해 무시되거나 간과되고 만다. 구조는 언급과 동일한 것, 즉 그 자체가 철학적인 순수 소여(factum)에 해당되지만, 물질이 다루어지고 관념이 구성됨에 따라 구조는 사람들이 언급한 말에 의해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 또는 이유들의 질서를 인지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길을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가 그 존재의 질서나 인식의 질서 길을 따라감에 따라 물질들이 이유들의 질서가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분리 구분되고 관념들이 그들을 구성하는 생산적이며 차등적인 요소들을 따라서 분해되는 길. 아울러 이렇게 분리되고 분해된 요소들과 이유들이 “계열들” 속에서 조직되지만 이와 동시에 교차가 있어서 이렇게 조직된 독립적인 계열들로 하여금 “상호연결”을 형성토록 하는 길, 그리하여 결국에는 문제나 해결의 상호 교차들이 있게 되는 길, 바로 이런 길을 추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87쪽)

① ‘정신적인 자동 장치로서의 구조’(스피노자의 체계-생산적인 요소들의 관계 유형과 요소들의 계열들 사이의 상호연결))를 규정해야 한다.

② 스피노자의 기하학적 방법(정의, 공리, 정리의 관계적 체계)이 이와 같은 규정된 구조에 엄격하게 들어맞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스피노자가 행한 증명들이 어째서 그곳에 나타난 것인지를, 그리고 증명들의 배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④ 하나의 체계의 구조가 갖는 고유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즉 체계의 내적인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일반적으로 체계는 체계를 구성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전보다 더욱 큰 공간을 다룰 목적으로 공간을 보다 촘촘한 방식으로 완전히 구획정리하면서 그들의 위치를 바꾸는 한에서 진화한다. 게루는 체계의 내적 진화와도 같은 ‘스피노자 체계의 내부적인 폐밀기’의 관점에서 신의 본질에 대한 질문, 신의 실존의 증거들에 대한 질문, 절대적인 결정론의 증명에 대한 질문, 그리고 특히 극도로 치밀하고 완벽한 실체와 속성의 정의들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 발생론적 철학 또는 건설적인 철학은 종합적인 방법과 밀접하다. 발생론적 건설의 과정은 신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절대적 무한자를 발견하는 순간 신에 도달하는 역진적 과정은 신의 개념에 흡수, 환원된다. 신을 향해서 가려는 분석은 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 과정은 쓸모없게 되어 소멸된다. 즉, 더 이상 분석적 방법이 아니게 된다.

#### (4) 수적이지 않고 질적인 것으로서의 실재적인 구분

##### [데카르트의 사물 구분법]

- ① 양태의 구분(modal distinction) : 공통점 기반 위에서 구분
- ② 실체의 구분(real distinction) : 공통점 없이 구분 예) 실체-속성  
→ 스피노자의 데카르트 구분법 비판 ; 정의된 방식으로 철저하게 인과성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스피노자의 사물/속성 구분법 : 실재적 구분은 수적 구별을 낳지 않는다. 본질의 표현인 속성들은 어떤 수도 말하지 않는다. 실체의 유일성.

- ① 실재적 구별 : 실체와 실체-배제
- ② 양태적 구별 : 실체와 양태-일방적 함축, 수적인 구별
- ③ 이성적 구별 : 속성과 속성-머릿속 추상에서는 구분되지만 사실상 같은 것. 질적인 구별.

게루는 세계의 본성을 결코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수에 대하여 하향된 가치매김을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속성들이 실재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각각의 속성이 다른 속성에 의한 부정이나 다른 속성과의 대립 없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이해된다는 것. 그리하여 모든 속성들이 동일한 실체에 의해서 긍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속성들의 실재적인 구분은 장애물이 되기는커녕 그가 속성들을 지니면 지닐수록 더욱더 풍부해지는 그러한 존재의 구성 조건을 이룬다. 이처럼 실재적인 구분의 논리는 부정이 배제된 순수하게 긍정적인 차이의 논리인 것이다. 속성들은 분명히 환원이 불가능한 **다양체**[속성들로 구성된, 따라서 속성들을 지니면 지닐수록 그만큼 더 풍부해지는 그런 유일하고 동일한 하나의 실체로서의 다양체]를 형성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유형의 다양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중략] “신은 혼성적이지만 부분들로 분할할 수 없으며, 이질적인 속성들로 구성되지만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수적인 언어의 부적합함이 고려될 때, 속성들은 이제 절대적으로 유일한 한 실체의 실체적인 본질들 내지 형식들이 된다. 즉 존재론적으로 하나인 그런 구성된 한 실체를 위한 구성 요소들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환원이 불가능한 요소들, 실체의 체계적인 합치를 위한 다수의 구조적인 요소들. 자기의 구성 요소들을 병렬시키거나 녹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한 실체를 위한 차등적인 요소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결국 스피노자주의 안에서는 실체로부터 유래하는 양태들의 발생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체 자체의 계보 또한 언급되고 있음을, 그리고 최초의 여덟 정리가 지니는 의미란 정확하게 말해서 바로 이러한 계보를 세우는 것임을 말해준다. 물론 이때 양태들의 발생은 실체의 계보와 다르다. 왜냐하면 양태들의 발생이 하나의 동일한 실재에 대한 규정들 또는 그 실재의 부분들에 의거하는 데 반해서 실체의 계보는 하나의 동일한 존재의 다양한 실재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또 양태들의 발생이 물리적인 조합에 관여하는 데 반해서 실체의 계보는 논리적인 구성에 관여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스피노자의 영감을 받은 바 있었던 흄스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양태들의 발생이 “생성된 것에 대한 기술”인 데 반해서 실체의 계보는 “생성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태들의 발생과 실체의 계보는(신은 자기원인과 같은 의미로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는 언급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유일하고 같은 의미로 말해진다. 그 이유는



양태들의 발생이 속성들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또 속성들 자체가 실체의 계보학적 요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태들의 발생이 속성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것처럼 내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발생론적 철학으로서의 스피노자주의 전체의 방법론적인 합치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이다.”(100~102쪽)

☞ **실재적 구분의 결과들 :**

- ① **스피노자의 존재론** = 비위계적인 존재론 + [일원론=다원론(다원주의)] : 긍정적인 차이의 존재론
- ② **신** = 다수의 속성들과 하나의 실체라는 다양체 : 단순한 제일의 요소들의 혼성 복합성(하나의 평면 속에 이질적 속성들의 공존)
- ③ **속성과 양태의 일의성** : 원인(실체)이 같다.

**(5) 신 = 자기 원인 + 만물의 원인**

“역능은 본질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공식은 우리가 이 공식을 거꾸로 뒤집는 순간부터 이해할 수 없게 되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1) 신은 자기 본질의 역능[즉 무한한 것을 세우는 생산 또는 발생 역능으로서의 자기 원인] 이외에는 결코 다른 역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신은 그 어떤 오성이나 의지를 통해서가 아닌, 오로지 자기의 본질을 통해서만 행위하며 생산한다. 이런 이유로 신은 자기 원인과 **동일한 의미로** 모든 것의 원인이다. 여기에서 역능의 개념은 모든 것의 원인과 자기 원인 사이의 동일성을 정확히 표현해준다. 2) 신의 생산물 또는 결과들은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특성들이되, 본질을 구성하는 속성들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특성들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양태들이다. 이때 서로 다른 속성들 속에서 생산된 양태들의 합치는 역능의 논의에 의해서, 즉 양태들을 각각의 양태 속에서 제기하는 바로 그 [자기 원인이라는] 인과적인 행위의 동일성에 의해서 설명된다(이로부터 실재적인 결과들=특성들=양태들이라는 등식과 “신은 무한한 사물을 무한한 양태들로 생산한다”라는 공식이 비롯된다. 이 공식에서 **사물**은 모든 속성들 속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특이한 원인을, 그리고 **양태들**은 개별 속성들에 의존하는 본질들을 가리킨다.”

☞ **신 = 자기 원인 + 만물의 원인 :**

신의 실체는 신의 본질 = 행위·활동(역능)

신의 지성·의지는 신의 역능이 펼쳐진 결과물, 즉 양태이다.

## 5. 스피노자와 우리 : 스피노자주의자되기 116쪽

### (1) 스피노자 철학의 원리 : 내재성의 평면

모든 사람이 스피노자의 제1원리, 즉 모든 속성을 위한 유일 실체의 원리를 안다. 그러나 우리는 제3, 제4 또는 제5의 원리, 즉 모든 신체를 위한 유일한 하나의 자연, 모든 개체를 위한 유일한 하나의 자연, 무한한 방식으로 변화하되 그 자체로는 하나의 개체인 자연의 원리 또한 안다. 물론 이 원리들은 더 이상 유일 실체에 대한 긍정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든 신체, 모든 영혼, 모든 개체가 존재하는 바로 그 내재성의 공통 평면이 펼쳐 드러남을 말한다. 여기에서 내재성의 평면 또는 고름의 평면은 정신 속의 구상이라는 의미의 평면이 아니다. 그것은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평면[우리가 흔히 “~에 대한 플랜”이라고 말할 때의 plan]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기하학적 의미의 평면, 즉 교선의 평면, 교차의 평면, 다이어그램[수많은 교선 또는 계열의 장으로서의 도표 또는 도식]의 평면이다. 따라서 스피노자라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양태적 평면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 또는 차라리 이 양태적 평면 위에 우리가 자리잡고 산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 우리의 삶의 양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함축하고 있음은 두말한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이 평면은 과연 무엇이며,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건설하는 걸까? 왜냐하면 이 양태적 평면은 그 자체로서 이미 충만하게 내재성의 평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스피노자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16~119쪽)

### (2) 스피노자의 신체관/인간관 : 활동주의 > 본질주의, 역할주의·기능주의

스피노자는 신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스피노자는 어떤 하나의 신체를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한다. 한편으로 신체는 신체 그 자신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무한히 많은 입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입자들 간의 운동과 정지의 관계, 이 입자들 간의 빠름과 느림의 관계가 바로 그 신체를 정의하며 신체의 개별성을 정의한다. 다른 한편으로 신체는 다른 신체들을 변용시키거나 또는 다른 신체들에 의해 변용된다. 그리고 이 변용시키고 변용되는 능력 또한 [입자들의 관계가 그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를 그 신체의 개별성 속에서 정의한다. 일단 겉으로만 보면 위의 두 정의는 하나는 동력학적이고 다른 하나는 역학적인 매우 단순한 두 명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명제를 가지고서 다음의 사실을 보이하고자 한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명제들 한복판에 자리잡게 되면, 그리하여 우리가 실제로 이 명제들을 살아보게 되면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며, 또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우리들 자신이 이미 스피노자주의자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첫 번째 명제인 동력학적 명제에 따르면 실제로 신체는 입자들 간의 운동과 정지의 관계, 입자들 간의 빠름과 느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된다. 즉 신체는 이제 [신체의] 형식이나 기능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 오히려 전체적인 형식, 특수한 형식, 유기적인 기능들이 [입자들 간의] 빠름과 느림의 관계에 의존하며, 심지어는 형식의 전개, 형식의 전개과정까지도 이 [입자들 간의] 빠름과 느림의 관계에 의존한다. 물론 그 역의 방향은 안 된다. 이렇게 본다면 중요한 것은 결국 삶과 삶에서의 각각의 개별성을 형식이나 형식의 전개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입자들의 차등적인 속도가 이루는 복잡한 관계로서, 입자들의 감속과 가속이 이루는 복잡한 관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삶과 삶이 각 개별성을 내재성의 평면 위에서 [입자들의] 빠름과 느림이 이루는 구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음악의 [개별] 형식이 소리 입자들의 빠름과 느림이 이루는 복잡한 관계를 따라 결정되는 것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본다. 물론 이것은 음악에만 관계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관계된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물들 사이로 빠져 들어가는 일, 우리가 그곳에서 다른 것과 결합하는 일은 [입자들의] 빠름과 느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새로이 시작하지 않으며, 우리는 결코 백지상태를 만들지 않다. 반대로 우리는 환경 사이로 빠져 들어가고, 환경 속으로 들어가며, 그곳에서 리듬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리듬을 부여한다.

한편 신체에 관한 두 번째 명제는 우리를 변용시키고 변용되는 능력으로 이끈다. 이 명제에 따르면 우리는 신체(또는 영혼)를 그 신체의 형식에 의해서 정의하지 않으며, 그 신체의 기관이나 기능에 의해서 정의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신체를 그 어떤 실체나 주체로서 정의하지도 않는다. 스피노자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스피노자에게서의 신체와 영혼은 실체도 아니요 주체도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그것들은 양태라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이론적으로 사유하는 일에 만족하고 그친다면, 그것은 결코 충분한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의 양태란 곧 신체와 사유 속에서 행해지는 빠름과 느림의 복잡한 관계, 신체와 사유가 지니는 변용시키고 변용되는 능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신체와 사유를 변용시키고 변용되는 능력으로 정의할 경우, 구체적으로 많은 것이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물이나 인간을 정의하게 될 경우 우리는 그들을 그들의 형식, 기관, 기능에 의해서 정의하지 않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을 하나의 주체로서 정의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변용에 의거하여 정의하게 될 것이다. 극대의 문턱과 극소의 문턱을 동반한 이 같은 변용의 능력, 실제로 이것은 스피노자에게서는 일상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아무 동물이나 선택하여 그 동물이 이런저런 질서 속에서 지니게 되는 변용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아이들은 이 일을 할 줄 안다. 프로이트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어린 한스는 마을에서 수레를 끄는 말이 지니는 변용의 목록을 작성한다([맞아야 말을 듣는 때가 있을 만큼] 오만하게 있기, 눈가리개를 착용하기, 빨리 가기, 무거운 짐을 끌기, 제 자리에 주저앉기, 채찍을 맞기, 자기 다리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이 같은 변용의 목록을 따르면 예를 들어 노역을 하거나 짐을 끄는 말과 경주를 하는 말 사이의 차이는 소와 노역을 하는 말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경주를 하는 말과 노역을 하는 말은 동일한 변용을 지니지도, 또 변용됨에서 동일한 능력을 지니지도 않기 때문이다. 노역을 하는 말은 차라리 소와 공통된 변용을 지닌다.

(119~122쪽)

☞ 사물/인간을 보는 방식의 패러다임 바꾸기 :

[㉠ 사물의 형상·기관 → ㉡ 되기/생성(변용)]

㉠사물의 형상·기관 : 고정된 주체·실체, 객체를 부정함

㉡되기/생성(변용) : 개인·사물의 정체성을 되기로 구성하자. 되기의 과정 속에서 정체성 혼란·광기를 초래하지 않을까. 모든 경험과 인식을 내재성의 평면으로 설명한다.

『윤리학』2부 : 스피노자의 신체 정의

신체의 속도와 위치 : ㉠빠름/느림, 운동/정지 등 ⇔ 형식, 형상(어떤 사물의 무엇임)  
㉡변용됨-다른 사물의 결과물/ 변용함-다른 사물의 원인 ⇔ 기관, 기능

예) 말 : 경주마/짐승는 말(소) → 플라톤의 형상론을 뒤집는 사고방식.  
신호체계들 → 다른 신호체계가 기호로 인식됨, 작동함.

-내재성의 공통 평면 : 그리스처럼 모든 것이 하나의 평면 속에 들어와 있다. 이질적인 것들의 접촉과 만남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세계, 종교적 위계 질서(초월성)이 아닌 세계  
예) 인간-개의 접촉방식/행위방식·기능방식·작용방식 : 먹이 주고받기

	초월성	내재성
정의방식	기관·형식	활동·작용
되기	고정성이라 되기 불가능	되기 가능

### (3) 스피노자의 윤리학 = 되기/신체구성하기

신체, 동물 또는 인간을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변용에 의거하여 정의하는 이 같은 연구들은 오늘날 우리가 비교행동학이라 부르는 것의 근거를 이루었다. 물론 이 연구들은 그것이 동물에게 유효한 그 이상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변용들을 미리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길고 긴 작업이며, 내재성의 평면 또는 고름의 평면의 건설을 함축하는 길고 긴 스피노자적 신중함과 지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도덕을 하나의 비교행동학으로서 받아들인다. 즉 내재성의 평면 위에서 [입자들의] 빠름과 느림이 이루는 구성으로서, 변용시키고 변용되는 능력이 이루는 구성으로서 도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스피노자가 다음과 같은 진정한 외침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당신들은 그 일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를 떠나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당신들은 신체 또는 영혼이 이런저런 만남, 배치, 구성 속에서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지 못한다.

요컨대 우리가 스피노자주의자라면, 우리는 어떤 것을 그것의 형식에 의해서 정의하거나 그것의 기관과 기능에 의해서 정의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것을 실체나 주체로서 정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세의 용어 또는 지리학의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경도(longitude)와 위도(latitude)에 의거하여 정의하게 될 것이다. 신체는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것은 동물일 수 있으며, 소리 신체일 수 있고, 영혼이거나 관념일 수 있다. 또 그것은 언어 신체일 수 있으며, 사회적 신체 또는 어떤 집단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어떤 한 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 간의 빠름과 느림의 관계 전체, 운동과 정지의 관계 전체를 그 신체의 경도라고 부른다. 또 우리는 변용시키고 변용되는 이중적인 자기 능력 아래에서 매 순간 어떤 신체를 채우는 변용 전체를 그 신체의 위도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하여 우리는 신체에 대하여 지도 제작을 하게 된다. 물론 이렇게 제작된 지도의 경도와 위도를 합친 전체는 언제나 가변적인, 그리고 개체와 집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조되고 건설되며 재건설되는 자연이라는 평면, 즉 내재성의 평면 또는 고름의 평면을 구성한다. (123~122 쪽)

☞ **내재성의 평면/삶을 구성하는 과정 =**

[신체의 경도(신체의 입자들 간의 빠름과 느림의 관계 전체, 운동과 정지의 관계 전체) + 신체의 위도(신체를 채우는 변용 전체) ⇒ 신체에 대한 지도 제작 ⇒ 개체와 집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조되고(재)건설되는, 제작된 지도의 경도와 위도를 합친 전체의 운동·활동]

스피노자의 윤리학 : 비교행동학/윤리. 동물행동학.

역능이란 행동, 펼쳐지지 않고는 모른다. 역능/행동이 펼쳐진 다음에 인식할 수 있다.

변용능력 = 배치, 만남, 구성 속에서 무엇되기 = 신체되기(신체구성하기, 지도제작하기, 인간의 정의)

**(4) 초월성의 평면 대 내재성의 평면**

그런데 이 “평면”이라는 말 또는 평면이라는 관념에 대해 완전히 대립적인 두 개념이 존재한다. 비록 대립적인 이 두 개념이 서로 섞여 있을지라도, 또 비록 우리가 대립적인 이 두 개념 중 한 개념에서 다른 한 개념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갈지라도 말이다. 우선 우리는 위로부터 비롯된 모든 조직화, 감추어진 초월성(transcendence)에 결부된 모든 조직화를 신학적인 평면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신의 정신 속에 그려진 구도는 물론이요, 우리가 자연의 가정된 심오함 속에서 보게 되는 운행,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사회의 권력의 조직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이 신학적인 평면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평면은 구조적이거나 발생적일 수 있으며, 또 동시에 구조적이면서 발생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면은 언제나 형식과 형식의 전개에 관계하며, 또 주체와 주체의 형성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형식의 전개와 주체의 형성, 이것이 곧 첫 번째 종류의 평면이 지니는 본질적인 성격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제 이러한 평면은 이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연관시켜 말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초월성의 평면이 되게 된다. 즉 형식과 주체를 지배하는 초월성의 평면, 언제나 감추어진 채로 있으며 결코 주어지지 않는 초월성의 평면,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을 근거로 추측되고 유도되며 추론되어야 하는 그런 초월성의 평면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평면은 언제나 차원 하나를 더 소유한다. 즉 이러한 평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지니는 차원 위에 추가로 부가되는 어떤 한 차원을 언제나 함축한다.

예를 들어 작곡의 평면은 작곡의 평면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들리지가 않는다. 하지만 작곡의 평면은 우리에게 들을 것을 제공하며, 또 작곡의 평면은 이렇게 들려진 것을 근거로 그 자체 추론된다-하지만 이와 반대로 내재성의 평면은 추가로 부가되는 차원을 소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작곡의 과정이 이제 작곡의 과정 그 자신에게 들려야만 한다. 즉 작곡의 과정이 그가 제공하는 것 속에 나타나야 하며, 그가 제공하는 것에 내재적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음악가가 [음악의] 형식을 소리 입자들 간의 속도 관계에 종속시키거나 변용의 역학적 부하에 종속시켜 작업하면서, [음악] 작품은 십분의 일초와 백분의 일초까지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사정은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글을 빠르게 쓰거나 느리게 쓰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빠름과 느림의 생산 행위라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괴테는 클라이스트(1777~1811, 독일의 극작가 겸 소설가)와 대비되며, 헤겔은 훔델린과 대비된다. 왜냐하면 괴테와 헤겔은 형식의 전개가 될 평면, 주체와 성격을 형성하고 교육하게 될 평면에 매달리지만, 반면에 클라이스트와 훔델린은 얼어붙은 긴장, 가속된 운동, 비주체화된 변용을 오로지 빠름과 느낌의 어휘를 통해서 사유하기 때문이다. 클라이스트와 훔델린은 스피노자주의자이지만, 괴테와 헤겔은 절대 아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평면은 언제나 뒤섞여 있다. 실제로 우리는 한 평면으로부터 다른 한 평면을 뽑아내며, 한 평면을 다른 한 평면 아래에서 유지하고, 또 한 평면을 획득함과 동시에 다른 한 평면을 보존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의 전개와 주체의 형성을 들여오는 초월적인 조직화의 평면과, 형식과 무관하게 빠름과 느낌을 통해 작용하며 주체와 무관하게 변용의 분배를 통해 작용하는 내재적인 고름의 평면 사이에는 경제적 정치적 예술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결코 동일한 음악, 동일한 정치, 동일한 철학은 있을 수 없다. 개인이 되었던 단체가 되었던 상관없이, 각자는 자기 고유의 내재성의 평면을 따라서 속도와 변용을 건설해야만 한다. 그리고 각자는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건설된 내재성의 평면을 받아들이고 살아볼 수가 있다. [중략] 실제로 로렌스, 버지니아 울프, 휘트먼 등 몇몇 영미 작가들은 언제나 그들의 본성상 스피노자주의자들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피노자주의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스피노자주의자가 되며 또 그 스피노자라는 환경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철학에서 스피노자가 차지하는 그만의 유일한 자리란 진정 이런 현상을 가리킨다. 빠름과 느낌, 변용으로 이루어진 내재성의 평면을 건설하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스피노자주의자되기, 이것이 곧 스피노자에게만 고유한 바로 그것인 것이다. (124~126쪽)

#### ☞ <두 가지 유형의 평면>

㉠초월성(신학적)의 평면 : 어떤 평면을 펼쳐지게 한 작용, 주체. 형식의 전개와 주체의 형성을 도입하는 방식.

㉡내재성의 평면 : 운동의 변화와 변용의 배치가 펼쳐지는 장.

작곡 : 작곡의 평면-----음악소리의 평면

초월성

내재성/ 작곡의 결과물

-스피노자 윤리학의 이중 구성 : 내재성의 윤리학 평면 속에 두 개의 이질적인 것들의 뒤섞임

㉢ 정리들의 연쇄 : 느리게

㉣ 주석들의 사슬 : 빠르게

### 3. 인간이 자유에 도달하는 2가지 방법

개인(또는 집단)의 변용능력 전체를 어떻게 능동적 활동능력으로 전환하는가. 자신의 역능을 펼치는 방식으로 행복의 길, 윤리적 삶의 길을 가꾸어나갈 수 있다.

#### ① 수동적 기쁨의 최대치에 도달하는 것 :

1종지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도시나 국가 등의 결사체를 통해 이성이 아닌 희망과 공포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② 수동적 기쁨에서 능동적 기쁨으로 전환·이행하는 것 :

2종지(혹은 3종지)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실존 영역에서 부분들끼리의 좋은 마주침을 조직함으로써 자연상태를 벗어나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